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13:00 ~ 15:00]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 작성 시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펜을 사용할 것.(청색/적색펜 및 연필은 사용할 수 없음)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 수정은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수정데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 □ 제 시 문 □

[가] 우리는 직관에 의해서 자명한 명제나 이성의 연역에 의해서 증명의 확실성이 성립되는 명제를 참이라고 여기기 위해 계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명제들은, 신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직접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지식 형성 방식에 따라 최대한의 확실성을 가진 지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착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명제들을 계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계시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결코 더 명증적일 수 없다.

계시라고 불리는 어떤 것도 확실한 지식을 동요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명증하다고 여겨진 지식과 모순되는 것을 참이라고 여기도록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방법도 없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능력은 어떤 계시를 직관적 지식 정도만큼은 확실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를 지식보다 더 명증한 것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뚜렷하고 분명한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는 결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동일한 물체가 서로 다른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명제가, 신의 계시라는 권위에 의존하여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명제에 동의할 수 없다. 신이 그런 계시를 통해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에 의해서 계시된 명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직관이나 연역에 의해 획득되는 지식보다 더 명증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관적 지식을 통해 하나의 동일한 물체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어떤 명제가, 직관적으로 분명한 지식이나 연역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명제와 모순된다면 이를 신의 계시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동의한다면, 모든 지식의 토대와 명증성, 그리고 어떤 명제에 동의할 때 지켜야만 할 원칙이 전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명제가 자명한 명제보다 우위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과 거짓의 차이가 있을 여지가 없고, 무엇인가를 신뢰할 수 있거나 없음을 결정할 척도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명제에 의해 밀려날 위험조차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닌 관념들 중 직접적 지각과 상반되는 명제를 신앙의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납득시키려 하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다. 그런 명제는 신앙이라는 명목뿐 아니라 다른 어떤 명목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혹자는 귀족 계급이나 자본 계급의 말을 표준어로 정하려고 할 수도 있다. 사실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선에서 서울말로 치는 것도 서울 안 양반 계급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요 결코 그 이하 계급의 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오직 수도어 본위만이 아니요 귀족 계급 본위까지를 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봉건 시대에 있어서는 양반 계급이 곧 지식 계급이라 그들의 말을 언어의 중심으로 삼는 데도 아무 이의가 없겠지만, 오늘에 와서는 귀족 계급 내지 자본 계급으로부터만 지식 계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말을 표준어의 본위로 삼는 데는 지금의 지식 계급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함을 면치 못한다. 모든 문화 사업이나 학술 연구도 지식 계급으로부터 지도되려니와 표준어의 제정도 그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터인즉 이는 상당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지식 계급의 말을 곧 표준어로 정하려고 할 수도 있다. 문화 또는 학술에 대한 그들의 유리한 지위로부터 그들의 말도 사회상 상당한 권위를 가지는 동시에, 표준어 제정에 대한 그들의 결정권으로부터 그들의 말이 중대시될 것은 도리어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만일 일부 귀족 계급이나 자본 계급에서 나온 것을 뺀다면 지식 계급의 대다수는 중산 계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식 계급의 말도 만일 귀족 계급이나 자본 계급의 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중산 계급의 말로 귀착될 뿐이다. 더구나 근대사회에 있어 정치상 경제상 내지 문화상 중산 계급의 세력은 결코 과소하게 보아 버릴 것이 아닌즉 따라서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중산 계급의 말을 표준어로 정하자는 일부의 논자까지 생기고 있으니 그것은 소위 언어상 ‘계란주의’다. 계란주의는 무엇이나 하면 머리와 끝이 빠르고 중간만 불룩한 계란과 같이 오직 중산을 중요시하여 그 이상과 이하를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산 계급의 세력이 거대하고 또는 그 계급으로부터 많은 지식 계급을 산출시키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귀족 계급이나 자본 계급의 말을 전연 무시해 버리고 그들의 말로써 곧 표준어를 정할 수가 있는가? 모든 방면에 있어 계란주의가 성공하기 어렵듯이 표준어에 있어서도 계란주의가 성공키는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다시 중산 이상 계급의 말을 표준어로 정하자는 절충안이 생길 수 있다. 이 절충안은 그들로 보아 확실히 하나의 명안(名案)으로서 오늘날 각국의 표준어는 많이 이 명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명안에도 노동 계급 내지 농민 계급의 말이 전혀 문제 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어느 민족에 있어서든지 어느 지방에 있어서든지 그들이 가장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그와 같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지식으로부터 거리가 먼 그들이라 말조차 전와(轉訛)\*와 파격을 많이 포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중산 이상 계급의 말이라고 다소의 차는 있을망정 어찌 전와 또는 파격이 없을 수 있는가? 만일 정확한 발음과 어법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어째서 각 계급어를 통한 선발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 조선으로 말하면 동식물의 명사를 그들이 제일 많이 보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말을 제외하고 어디서 동식물명을 찾으려는가? 또는 중산 이상 계급의 말이 가장 한문화한 데 반하여 고유한 조선을 그들이 비교적 많이 보전해 오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하여 그들의 말을 제외하여 그 잔존의 고유어를 배제코자 하는가? 우리 조선의 언어 연구자들은 언어 정확의 이상 아래 한문으로 된 말을 크게 기피하는 만큼 적어도 노농 계급어를 표준어의 중심으로 삼지 않아서는 안 된다. 노농 계급의 말로까지 시각을 넓히지 않는 한 자가당착에 떨어지고 만다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 전와(轉訛): 어떤 말이 본래의 뜻과 달리 전해져 굳어짐.

[다] “(…) 피아의 구분이 서로 형성됨으로써 은인과 원수가 생겨나고, 강약의 정도를 서로 살핍으로써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이 나타나며, 이해관계에 서로 매달림으로써 모이고 피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복잡하게 무리 지어 있어도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외로이 홀로 있다고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이것은 ‘형세의 논리’입니다. 반면 천고의 먼 옛날로 세상을 설정해 두고, 수많은 사람들과 무관하게 자신을 초탈시키면, 피아의 구분이 형성되지 않고 강약의 정도가 비교되지 않으며,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도 당파를 이루지 않고, 홀로 되어도 괴이한 짓을 하지 않으니, 이것은 ‘도리의 논리’입니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서로 무관하지 않은 것은 성(性)에 리(理)와 기(氣)가 있는 것과 같으며, 이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어긋날 수 없는 것은 성을 논설하는 자들이 하나의 이론을 고집하여 다른 이론을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와 그대의 생각이 합치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설명하는 입장이 서로 어긋나 있어서 틀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대는 현달한 사람이어서 함께 교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당대의 걸출한 호걸일 터이니, 형세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격식을 깨고 강호로 직접 수레를 타고 찾아와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은 충분히 들어온 얘기 외에 아직 못 들은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그대가 그동안 익히 들어온 얘기를 다시 드린다면, 그것은 물고기와 자라를 잡아서 강과 바다를 대접하는 꼴이겠으며, 그리고 그대가 그동안 익히 들어온 것과 다른 얘기를 듣는 것을 의문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채소와 과일을 찾아 놓고는 맛이 썩이나 고기와 다르다고 의문스러워하는 셈이니, 너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듣기로 군자는 자신에게서 병으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인식하거나 악을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병입니다. 선인 줄 알면서 따르질 못하고 악인 줄 알면서 피하지

못하는 것은 지기(志氣)가 모자란 병입니다. 선인 줄 알면서 따르지 못했을 때 따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대뜸 ‘저건 분명 선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피하지 못했을 때 피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대뜸 ‘이건 분명 악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 씀이 비뚤어진 병입니다. 견해가 잘못된 병은 깨달으면 없앨 수 있고, 지기가 모자란 병도 힘써 노력하면 없앨 수 있지만, 병이 마음에 있는 것은 죽어야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업을 이룬 군주들이 버렸던 것이며, 성사(聖師)이신 공자께서 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깨달지 못할 뿐입니다.

견해와 지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자신할 수 없지만, 마음 씀이 비뚤어진 병의 경우는 그 병에 들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명하신 그대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손님은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그대 말씀이 옳습니다.”

[라] 빈곤 문화는 지역차나 도농차, 심지어는 민족적 차이까지도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런던, 글래스고, 파리, 멕시코 시에 거주하는 하층민의 삶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 대인관계, 시대적 연원, 가치 체계, 소비 행태 그리고 공동체의식 등에서 눈에 띄는 유사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되는 빈곤의 보편적 특징이 거의 대부분 빈곤 문화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문화의 이식은 대체로 전쟁이나 평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 강압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기존 문화는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 의미에서 기존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정 문화의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경우 열세에 놓인 문화는 오히려 그것에 의해 압도되고 종국에는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우리 생활에 잠재적인 해악과 병폐를 야기하는 문화가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문화의 주종을 이루는 것도 대체적인 경향이다.

빈곤 문화가 타문화에 비해 상대적 전파력이 크다는 주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 강한 설득력을 얻는다. 어떤 곳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버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 만다는 이 이론은 빈곤 문화가 야기하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병리 현상들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해 준다. 멕시코 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빈곤 문화는 멕시코 시 전체 인구 중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층민에게 적용된다. 빈곤 문화를 답습하는 인구의 특징은 사망률이 높고 평균수명이 낮으며, 청년층 비율이 높고 성인 남성 노동자보다 미성년 노동자와 부인 노동자가 더 많다는 데 있다. 또한 국가 체제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여 대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면서도 주류사회와 격리된 채 주변인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고, 실업, 불완전 고용, 저임금, 잡다한 미숙련 직업, 미성년 노동, 만성적 금전부족, 고리채 차용 등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다. 이 외에도 빈곤 문화는 노동 윤리의 부재, 공공복지에의 의존, 주거지의 불확실함, 군거(群居), 사생활 관념의 부재, 약물 오·남용, 가정폭력, 조기 성경험, 권위주의의 복종, 패배주의,宿命론에 빠지는 경향 등의 특징이 있다.

방금 열거한 빈곤 문화의 특징과 병폐들은 자생적이라기보다 빈곤 문화의 이식 메커니즘에서 발생한다. 특히 멕시코 시의 경우에는 세대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빈곤 문화가 전이되는 면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모들이 배태한 빈곤 문화가 가정 내 학습과정을 통해 자식들에게 대물림된다든지, 빈곤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는 접경지역 하층민들이 암묵적 동조나 규범의 약화 등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곤 문화의 새 일원으로 포섭된다든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멕시코 시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빈곤 문화의 병리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문화의 재생산 메커니즘에서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 □ 문 항 □

##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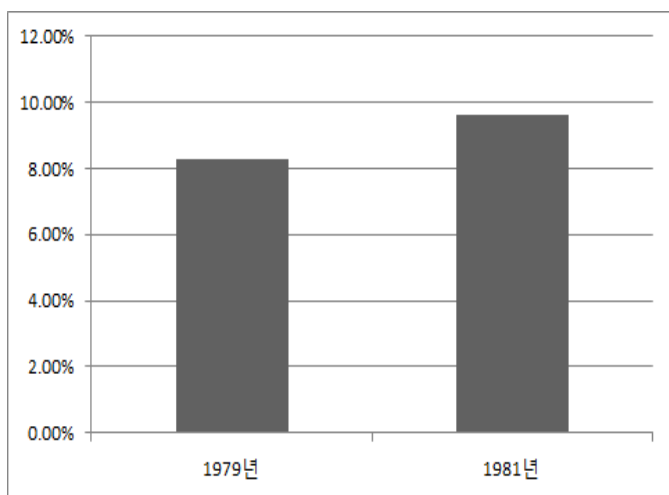
## 【문항 2】

1980년 4월 20일 쿠바 정부는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쿠바인들이 쿠바의 마리엘 항구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1980년 9월까지 약 125,000명의 쿠바인들이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이들은 쿠바와 가장 가까운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 도착하였다. 이때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을 ‘마리엘리토’라고 부른다. 마리엘리토는 대부분 미숙련 근로자들이었다. 마리엘리토가 마이애미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16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에 미친 인구 통계적 영향은 매우 컸다. 마이애미의 경제활동인구는 단기간에 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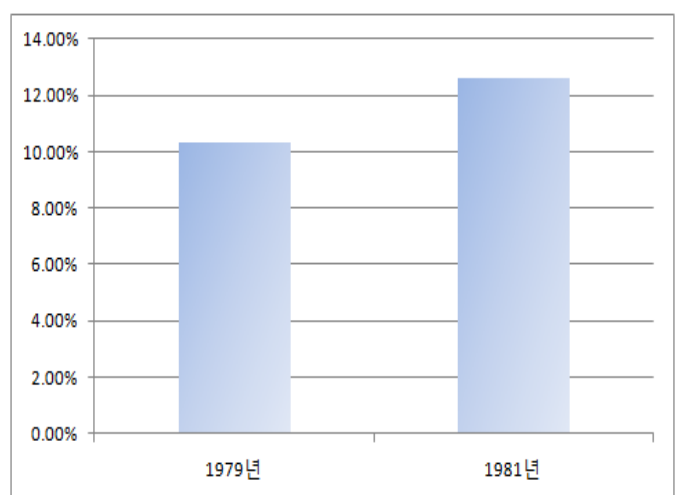
<그림 1>은 마리엘리토의 유입이 있기 전인 1979년과 이들의 유입을 겪은 후인 1981년의 마이애미 흑인 실업률을 보여준다. 그 당시 마이애미 흑인들은 노동시장에서 마리엘리토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림 2>는 같은 시기에 마리엘리토의 유입을 경험하지 않았던 애틀랜타, 휴스턴, 로스앤젤레스의 평균 흑인 실업률을 보여준다.

<그림 1>과 <그림 2>를 근거로 마리엘리토의 유입이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시오. 단, 그러한 추론을 위해 필요한 가정(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lt;그림 1&gt; 마이애미 흑인 실업률



&lt;그림 2&gt; 애틀랜타,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흑인 실업률



## 【문항 3】

<보기>에 나타난 A씨의 태도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lt;보기&gt;

시리아 난민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유럽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수용에 찬성하는 반면 체코와 같은 국가들은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한 시위 현장에서 만난 헝가리 국적의 A씨는 시리아 난민의 자국 내 수용이 불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